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將來

權 泰 竣

(助 教 授)

一. 設立 趣旨

1968年 初에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設置된 것은 最近 韓國社會 發展의 몇가지 뚜렷한 事態와 關聯이 있다. 그것은 社會事情의 變動 뿐만 아니라 學問的인 發展에도 起因하였다.

1965年頃 一般的으로 韓國에 都市 또는 地域空間計劃을 爲한 高等教育課程이 必要하다는 말들이 一部 關心을 가진 人事들 間에 오가고 있을 무렵부터 韓國社會는 그 生活空間에 커다란 變動이 豫想되었다. 그 하나의 뚜렷한 徵候가 都市의 急激한 成長趨勢였다. 우리가 常識처럼 알고 있던 7對 3이라는 農村과 都市의 人口比는 1965年頃에는 이미 6對 4로 되어 있었고 年年 都市쪽으로 더 기울어져 왔다. 머지않은 將來인 70年代中에 都市와 農村이 全國人口의 半半을 各各 包容하게 되리라는 推定도 現今의 事態의 發展이 뒷받침하고 있다. 人口의인 面에서의 變動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意識構造, 生活모빌리티, 施設環境 等, 이 모든 것에 현저한 變化가 일어났다.

이런 事態의 發展에 當하여 社會에는 새로운 態度, 새로운 政策, 새로운 發展의 戰略의 必要가 切感되었다. 都市의 發展은 全體社會發展의 다이내믹스로 認識되고 따라서 傳統的인 建築과 土木事業의 觀念과 技法만으로서는 敢히 그 問題의 所在나마 把握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된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建國以後 社會全體의 最大의 關心事이고 至上의 課題였던 經濟의 成長도 地域空間의 構造와 不可分의 關聯이 있음을 認識하게 되면서 國土의 地域空間의 調査와 研究는 새로운 成長과 發展의 可能性을 模索하는 것으로서의 積極的 意味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地域空間의 研究는 社會·經濟發展의 價値目標自體의 定立에 直結되는 包括的인 政治·社會·經濟的 過程(Process)과 관련하여서 遂行되어야 하고, 주어진 發展을 入住시키기 爲한 空間의 物理的 設計만을 하는 것이 아니게끔 되었다.

또 한편 이 모든 事態와 認識의 變遷은 最近 數年間의 韓國과 世界內의 學問의 進歩와 相關이 있고 兩者間에 繼續的인 Feedback이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本大學院에 “都市 및 地

域計劃學科”가 設立된 것도 그와 같은 事態와 社會認識의 發展뿐만 아니라, 그 무렵 本大學院內의 學問의 方向과 方法의 變遷에도 起因하는 것이다.

諸科學의 綜合的 研究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幅을 점점 넓힘으로서 社會問題의 綜合的 調査·研究의 可能性이 커지게 되고, Operations Research, Systems Analysis 등의 方法論의 紹介로 社會問題의 計量的 取扱의 意義와 方法을 漸次 認識하게 됨으로서 都市와 地域空間의 構成, 社會發展의 ダイナ믹스 등을 綜合的으로 研究教育할 수 있는 學問的인 準備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分野의 研究와 教育을 施行함으로써 이제 막 導入되고 理解되기 始作한 위와 같은 새로운 學問的 方法論들을 韓國社會問題에 應用을 해 볼 수 있고 또 이 應用過程을 통해서 좀더 實用的인 方法論을 開發해 낼 수 있으리라는 期待도 곁들여 있었기 때문이다.

저 같은 社會事情의 變遷에 對應하고 前述한 바와 같은 學問的 發展에 附應해서 本大學院의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는 設立當時 그 設立趣旨를 다음과 같이 宣言하였다. 即, “우리는 이 科를 設立함에 있어서 앞날의 計劃家와 計劃政策 樹立者들로 하여금 全體的인 國家社會 發展의 目標과 관련하여서 計劃作業과 政策을 遂行해 나갈 수 있는 洞察力과 技能을 연마하게끔 하는 것을 教育의 目的으로 하고……”(英文版 設立趣旨文 p. 3) 이와 같은 教育目的을 爲해서 敎課程과 敎授法은 “諸科學 綜合的 研究를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前掲 p. 1)고 하였다. 이는 傳統的인 都市 또는 地域空間의 計劃學이 工學的인 設計의 技法 또는 經濟的 數量的 分析에만 그치고 社會發展의 諸問題의 綜合的 研究를 缺했던 것, 計劃家와 政策決定者, 執行者間의 意思傳達의 困難, 그리고 各分野 計劃의 調整不足等 때문에 韓國社會에 前述한 바와 같은 새로운 事態發展에 對應할 수 없었던 것에 對한 解決策을 模索해 보려는 意志를 表現하고 있다, 이 設立趣旨는, 또 本學科는 상아탑의 學問을 爲한 學問만을 하기 爲한 것이 아니고, 社會發展에 기여하기 爲한 韓國의 새로운 部類의 計劃職業人들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할 것이라는 뜻도 말하고 있다.

이 設立趣旨는 本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現在와 將來에 發展의 指標가 될 것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의 進歩는 이 設立趣旨의 段階的 具現이 될 것이다.

二. 發展의 與件

지난 一年間의 業積을 여기서 회고해 보는 것은 未來의 發展의 定礎를 다짐해 보기 爲한 것이다. 始作이 卍이라는 말은 發展의 素地는 처음부터 다듬어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함일 것이다.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첫 해였던 지난 一年間에는 難關도 許多하고 사소한 試行錯誤도 더러는 있었지만, 前述한 設立趣旨에 담긴 바와 같은 指標에 別로 어긋남이 없는 發展의 主

춧물은 놓였다고 본다.

比較的 短期間에 그와 같은 定礎가 可能했던 것은 本大學院만의 功이 아니었음을 우선 밝혀 두어야 하겠다. 서울大學校의 總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六個 單科大學의 教授들로 構成된 設立準備委員會의, 設立 當時의, 獻身的인 努力 그리고 設立 以後에도 위 設立委員들을 包含한 他大學 教授들의 個別的인 協力이 있어서 行政的인 運營의 원활뿐만 아니라 設立趣旨가 期하는 바와 같은 諸科學 綜合的 研究와 教育이 可能하였던 것이다. 또 設立當時 政府의 關係部處와 關聯 外國機關의 關心있는 人事들로 構成된 設立諮問委員會의 積極的인 後援이 있어서 設立當時 뿐만 아니고 그 以後도 社會의 變遷과 恒常 緊密한 對話를 가질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有益한 關係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또 그러하도록 努力할 것이다.

그 以外에, 지난 一年間에 造成된 興件 가운데 다음과 같은 要素들이 우리가 本來 意圖했던 대로의 發展을 推進함에 功獻하게 되리라고 본다.

첫째, 開科 첫 해에 入學이 許容된 學生들의 大學에서의 學問背景이 本大學院이 意圖하는 教育目標에 適合하게 附應할 수 있게끔 配合되어 있음이다. 一部班의 경우 크게는 人文社會科學系 大學 出身者와 理工學系 出身者가 各各 半半이 되고 그 各部類內에서도 어느 한 特殊分野에 數的으로 치우쳐 있지 않음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社會의 變遷과 學問의 發展이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에 要請하는 諸科學 綜合的 研究와 教育을 우리가 뜻한 바대로 遂行해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配合이 얻어진 것에는 多少間의 偶然도 介在되어서 일 것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配合은 지난 一年間 오늘날 우리 社會가 要請하는 都市 또는 地域計劃의 Interdisciplinary Study의 틀과 方向을 成功的으로 定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評價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配合이 얻어지도록 可能的 最大의 努力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出身學科別 配合에 더하여 二部の 경우에는 現職 또는 過去의 公職上의 經歷이 또한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의 可能的 最大限의 範圍를 카버하고 있다. 建設部는 勿論 內務部 交通部 뿐만 아니라 서울特別市 仁川市를 包含한 地方自治團體에 걸쳐 均衡있게 配分되어 있다. 이와 같은 構成은 現在 또는 가까운 장래에 切實히 要請되는 計劃行政機關 相互間의 協調에 寄與하게 될 것임은 勿論이고 本學科의 커리큘럼이 志向하는 計劃과 行政의 有効한 結緣을 成功的으로 遂行함에도 寄與할 것이다. 其實 지난 一年중에 本學科가 試圖했던 首都圈長期交通計劃 세미나와 같은 公開세미나가 成功的으로 進行된 것도 위와 같은 二部學生의 成分에 힘 입은 바 크다.

둘째는, 教授陳의 養成 乃至 物色이 滿足스럽게 始作된 것이다. 우선 이에 關係 外國機關과 學校들이 이 分野 教育開發의 重要性을 充分히 認識하고 우리의 不足한 條件에 대해서

物心 兩面의 도움을 아끼지 않은 事實과 이 面에서의 앞으로의 展望도 지난 해에 못지 않게 밝음을 指摘하고 싶다.

本學科의 主任教授인 盧隆熙教授가 지난 八月以後 一年間 歐美諸國의 都市 및 地域計劃學과 그 教育方法의 最近 動向을 살피기 爲해서 出發한 것, 그 以外에 두 사람의 本學科 助敎들이 各各 M·I·T 와 핏즈버그大學에서 都市設計와 地域計劃學을 專攻하기 爲해서 이미 美國에서 學業을 始作한 것 등은 그 專攻科目別 配分이나 歸國後의 所任의 面에서 보아 着實한 始作이라 하겠다. 그 以外에 오스트렐리아에 都市計劃分野의 博士過程을 거의 마치고 있는 분이 오래지 않아 本學科에서 教授活動을 하게 될 것이다.

教授陳의 養成이야말로 長期間의 努力과 면밀한 企劃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난 한 해에 우리는 어느 한 分野, 어느 한 學校에 置重하지 아니하고 多樣한 背景과 能力을 갖출 教授陳의 確保를 爲한 첫 걸음을 내딛는 데 成功하였다. 뒤에서 다시 言及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計劃은 今年에도 着實히 進行되고 있음을 附言해 둔다.

셋째, 研究와 教育에 필요한 書籍과 施設이 當장의 需要를 充足할 만큼은 確保된 것이다. 지금 現在 輸送 途中에 있는 本學科 所要의 圖書가 到着되면 不足하나마 基本的인 教材의 需要는 充足될 것이며, 其實 都市 및 地域計劃學分野에서는 韓國內에서 적어도 當分間은 最大의 장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基盤으로 해서, 段階적으로 補完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일이다.

여기서 施設이라 함은 建物도 包含하는 바이지만, 本學科의 커리큘럼이 工學的인 作業도 包含하는 것이어서 그 作業을 爲한 施設도 意味한다. 지금 現在 作業室의 內部施設 具備가 거의 完成段階에 이르러, 本來는 한 學期만을 課하려 했던 計劃實習 作業課程을 한 學期 附加하여 今年 3月부터 始作할 수 있게 되었다. 本學科의 學業이 社會諸科學과 數理, 工學의 技法의 綜合을 名實 共히 實踐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넷째, 開講무렵부터 外部社會와 끊임없는 對話에 成功한 것이다. 建設部長官 서울特別市長을 爲始한 國內 計劃政策樹立者들의 協調로 社會實態와 그 變遷의 山 資料들이 教育에 投入될 수 있었고 이 分野 外國 碩學들의 來校로 發展하는 外國學界의 動向에 敏感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對話는 反面, 外部 社會로 하여금 本學科 發展에 關心과 後援을 하게끔 하는 素地를 마련했다고 본다. 最近 18週에 걸쳐서 進行되고 있는 本學科와 韓國科學技術研究所 共同主催의 公開「首都圈 長期交通計劃 세미나」에 대한 外部의 關心과 積極的 參與가 그 徵表의 하나라 하겠다.

大體로 저와 같은 事實들이 지난 一年 동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가 걸어온 발자취中 뚜렷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지나간 해의 業積을 돌아 보는 것은 過去에 向해서 自畫自讚을 하기 爲한 것도 아니며, 未來에 對한 自慰를 하기 爲함도

아니다. 앞날의 發展을 爲한 條件과 要件을 살펴 보고 다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다만 그 條件과 要件이 우리가 意圖하는 바로의 發展을 爲해서 한걸음 더 닦아서 있음은 分明하다.

三. 未來의 企劃

本大學院은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未來의 發展을 企劃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發展 假定을 設定하였다.

첫째, 1970年代 中期까지 計劃學의 研究와 教育을 專擔하는 獨立된 大學院으로 發足한다. 이는 그 무렵까지 豫想되는 計劃學의 專門化와 그에 따른 計劃 職業의 特殊化, 그리고 教授와 學生數와 施設의 팽대에 對處하기 爲한 것이다.

둘째, 1973年경까지 15人内外의 專任教授陣을 확보한다. 適合한 數와 充實한 質의 教授陣의 확보야 말로 大學院 教育의 關鍵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本學科의 發展計劃의 核心이다. 15人 内外를 合當한 數로 본 것은 各分野別 專門化의 필요와, 分離된 大學院이 되는 경우에 全學生數를 百名 程度로 보고 學生對專任教授의 比率을 約 7對1로 함이 妥當하다고 評價한 것에 基한다.

셋째, 學生의 數는 1970年代 中期에 分離된 計劃大學院이 될 무렵 1, 2部 1,2學年을 合해서 總 百名으로 增員기로 한다. 이는 지금부터 10年間에 韓國全域에서 새로 필요하게 될 計劃職業人의 總數를 約 2千餘名이라는 推算에 基해서 그 中에서 서울大學校가 擔當할 수 있는 供給의 數를 그 約 4分之1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判斷에 依한다. 이와 같은 判斷에는 勿論 멀지 않은 장래에 地方 他大學에도 이 方面의 教育과 研究가 遂行되리라는 豫想이 考慮되어 있고 그 가운데 서울大學校의 比重을 考慮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基本的인 發展假定 밑에서 다음과 같은 行動計劃을 作成하여서 1968年 6月以後 實踐에 옮기고 있다. 이 行動目標들은 計劃過程 中에서 多少 修正과 變更을 全혀 豫想치 않는 것은 아니나, 前述한 바의 設立趣旨에 表現된 教育理念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一) 教授陣養成 計劃

教授養成은 1968年에 始作하여 1973年에 그 一般的인 事業은 끝내기로 하고 있다. 그 以後에도 部分的인 訓練을 爲한 研究活動은 계속 장려될 것이지만 全體의인 質과 量은 上記 6年內에 具備되도록 推進할 것이다.

韓國의 이 分野 教育과 研究가 아직 미약함을 鑑眼하여, 教授陣 養成의 方法은 주로 新進들의 海外教育機關에서의 訓練에 依할 것이다. 本大學院이 추천하는 海外 教育機關에서 該當 專門分野에서 적어도 碩士學位를 修得할 것을 資格 要件으로 한다.

위에서도 言及한 바이지만, 이 教授陣의 養成計劃은 지난해부터 實踐에 着手되어서 本學

科의 助教인 崔相哲, 洪性哲 兩氏가 各各 地域計劃學과 都市計劃技法을 研究키 爲해서 美國의 MIT에 留學하고 있다. 또 今年度에 留學키 爲하여 現在 3人의 選拔된 人材들이 入學手續을 進行中이다.

本大學院이 위와 같이 選拔 추천해서 海外 留學케 하는 경우에는 教授陣養成 計劃案에 依해서 定해진 專攻別 課程別 優先順位에 따라서 年度別 海外 訓練順序가 決定된다. 6年間 年平均 2乃至 3人을 보내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優先順位와 數의 制限은 勿論 制限된 財源과 其他 人的 制度的 制約條件 때문이다.

分野別 優先順位는 本學科의 教課課程에 있어 基本課目으로 認定된 分野, Inter-disciplinary Study 方法의 完成, 社會의 需要등을 考慮하여 定하고 있다. 이 優先順位는 勿論 現在 이미 만족할 만한 訓練을 받은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嚴格히 適用될 것은 아니다.

訓練을 시킬 人材를 選拔함에는, 可能한 最短期日內에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의 教育과 研究를 爲한 Interdisciplinary Study의 方法論과 專攻別 學問을 修得할 수 있는 能力과 學的 背景을 考慮하며, 特히 交通計劃, 地域計劃, 計劃財政, 公共施設論 등의 여러 分野를 위해서는 數量的 研究方法을 可能한 最短期日內에 修學할 수 있는 能力을 重視한다. 1970年 本學科의 첫回 卒業生이 배출된 以後부터는 卒業生中 優秀한 者들의 海外派遣에 努力할 것이다.

이 教授養成 計劃에 依해서 海外에 派遣된 者들은 最長 2乃至 3年以內에 要求되는 課程을 履修하고 歸校해서 該當 分野의 教育과 研究에 봉사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分野에 對해서는 다시 博士過程의 履修 機會가 주어 질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現在의 計劃으로는 1973年까지 第1次의인 訓練을 받은 教授陣中 적어도 3乃至 5人이 다시 Post-graduate 研究의 機會가 주어질 것이다.

教授養成 計劃의 財政은 當分間은 外國 援助機關과 學校들에 依持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M·I·T의 學費 補助와 아세아財團, USAID의 원조와 今年度의 展望 및 그들의 本學科의 教授養成計劃의 重要性의 認識 등에 비추어 불래 財政支援에 困難은 豫想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우리政府의 支援도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二) 學生의 質과 量

學生의 數는, 前述한 바와 같이 1970年代 中期까지 總 百名을 확보할 것을 目標로 하여 段階的인 增員을 計劃한 것이다.

이 段階的인 增員은 또 專任教授의 確保數와 一定한 比率로 比例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부터 1970年까지는 1, 2學年 各各 25名으로 되어 있으나 1971學年度에는 專任教授數가 6, 7

인이 될 것을 前提로 하여 每學年 30 人으로 增員하고, 1973 年에 40 人, 1975 年 무렵에 50 人 即 總 百人이 될 것으로 하며, 이 數는 前述한 바와 같이 專任教授 15 人 内外의 分離된 計劃大學院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百名이라는 數値를 所望狀態로 본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全域의 計劃職業人의 需要추세와 서울大學校의 그 需要에 대한 役割 등의 考慮에 基한다.

入學이 許容될 수 있는 學生의 質에 관해서는 계속 人文社會科學系와 理工學系가 均衡있게 配合되게끔 努力할 것이다. 이에 前述한 바와도 같이 多少의 偶然的인 要素도 介在하게 될 것이지만, 應試資格規定에 依한 出身科 要件, 受驗科目의 調整 등으로 人爲的인 컨트롤이 尠히 不能한 것은 아니다.

二部の 경우에는 可能한 限 多樣性 있는 職種과 機關으로부터 應試者들이 올 수 있게끔 할 것이다. 1969 學年度에 아세아財團의 財政支援과 內務部의 協調로 2 人의 遠거리 地方自治團體 公務員을 장학금으로서 修學 可能케 한 것 등은 이러한 努力의 하나 이다.

1, 2 部 어느 경우에나 저와같은 入學生의 成分을 具備코져 하는 것은 오늘 그리고 장래에 우리社會가 要求하는 都市 또는 地域計劃 教育和 研究가 學的인 面에서 뿐만 아니라 實務에서도 綜合性을 가질 것과 協調的인 企劃과 實踐을 可能케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修學過程中에 學問的, 職業的 背景이 相異한 사람들 間에 都市 또는 地域計劃의 方法과 技術을 통해서 서로 意思소통을 可能케 하는 것만도 本學科의 重要한 教育課題의 하나이다.

(三) 커리큘럼

커리큘럼에 관한 限은 現在의 필요한 總 履修學點數(36 學點)와 全體的인 課目構成에 큰 改正을 豫想치 않는다. 다만 1970 年 以後 第 1 回 卒業生이 社會에 배출되어서 그들의 能力을 테스트 當해 보고, 海外에서의 研究 修學하고 돌아오는 教授陣이 相當數 確保될 무렵 部分的인 改正을 爲한 檢討를 試圖할 것이다.

設立當時 커리큘럼을 試案할 때에 考慮되었던, 都市計劃과 地域計劃의 相關的 教育, 工學的인 技術과 社會科學的인 分析 能力의 綜合的 研究, 社會現象取扱에 있어 數量的 取扱方法의 重要視 등의 原則은 以後의 커리큘럼 再檢討의 경우에도 重要한 評價基準이 될 것이다. 韓國의 高等教育의 全體的인 質的 向上과 더불어 期待되는 것은 本學科의 커리큘럼은 漸次 一般的이고 基礎的인 課目の 負擔은 줄이고 專門的인 分野의 細分化를 하는 反面 깊이를 充分히 함으로써 諸科學綜合的 方法에 依한 問題解決의 能力을 기르는 方向으로 發展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1970 年代 中期에는 서울大學校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 分野의 博士過程이 開設될 것을 期待 한다.

(四) 圖書와 施設

새로운 學問分野에서 그 分野圖書의 具備은 무엇보다도 急先務이다. 本學科는 1973 年 무

렵까지 約 5千餘卷의 冊과 資料의 確保를 計劃하고 있다. 이 5千卷이라는 數値에는 純粹히 都市 및 地域計劃學 分野의 것만이 包含되어 있다. 其他 關聯分野의 圖書는 서울大學校의 中央圖書館과 本大學院 圖書館에 依持하게 될 것이다. 또 5千餘卷 中에는 國內 刊行物은 除外되어 있다.

이 5千餘卷이라는 數値는 學問的인 必要의 判斷에 依한 所望線이라기 보다는 財政的인 與件을 鑑眼한 可能值라고 하는 것이 더 妥當하겠으나, 大體로 이 程度이면 最近 海外 學界 實務界에서 發表된 이 方面 重要한 書籍과 資料를 求得할 수 있으리라는 推定은 있기도 하다. 其實 都市 및 地域計劃學 分野에서는 實務의 資料와 情報가 學術的인 著書에 못지 않은 重要性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資料와 情報 수집에도 많은 努力을 기울리게 될 것이다.

前述한 바와도 같이 지난 한해 동안에 이미 相當量의 基本的인 書籍과 資料의 수집을 하였다. 2千弗 어치의 單行本과 專門雜誌가 지금 輸送 途中에 있고, 2百餘種 國內外의 計劃 關係 實務 資料가 이미 수집되어 있다. 이와 같은 成果가 可能했음에는 韓國 政府와 USAID, 아세아財團 등의 内外公共機關의 援助와 國內外 많은 研究團體들의 好意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購買 뿐만 아니라 交換方法에 依한 書籍과 資料수집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與件과 추세가 계속되는 限 每年 千餘卷의 필요한 書籍과 資料의 수집에는 別 곤란이 없을 것으로 豫想 한다.

施設中 建物の 경우는 莫大한 投資를 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大學校 綜合 캠퍼스化 計劃이 進行中이어서, 새로운 서울大學校 全體의 施設計劃의 一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1970年代 中期에 行政大學院으로부터 分離된 하나의 大學院으로 發展할 것을 前提로 하고 서이다. 이것은 本學科가 設立될 當時 前記한 設立準備委員會에서도 想定했던 바이다.

그 以外 本學科의 教育內容의 特殊性으로 因한 教授用 施設의 具備는 2, 3年內에 大體로 完備할 것으로 計劃되고 있다. 作圖의 必要施設은 지금 現在 거의 完備되었으며, 實地답사용 機材와 視聽覺 教授用 道具中 基本的인 것들도 現在 輸送 途中에 있으며, 今年 1學期內에 架設이 完了될 것이다. 남은 課業은 이것들을 補充하는 것일 뿐이다. 그 以外에 앞으로 3, 4年 以內에 電子計算機를 授業과 實習에 利用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게 되기를 期待하고 있다. 本學科의 數育 內容의 性質로 보아 컴퓨터의 利用은 必要不可缺의 것이 될 것이다. 이미 計算理論에 관한 基礎的인 知識은 몇몇 科目에서 教授하고 있다.

(五) 其 他

以上の 基本的인 發展計劃 以外에도 教育의 內容을 充實히 하고 社會的인 寄與의 範圍를 넓히기 爲하여 1972年경에 附設 都市 및 地域計劃을 爲한 研究所의 設置와 定期 學術誌의 刊行을 計劃하고 있다. 研究所의 設置는 實際 問題와 그 解決方案의 研究를 커리큘럼에 좀

더 깊이 紹介하는 同時에 社會에서의 이方面 技術에의 要講에 附應키 爲한 것이다. 이미 科主權의 세미나 또는 研究用役 등이나 教授의 個別的인 參與로 最近 激增하는 計劃技術에의 要講에 部分的이나 對應하고 있는 터이지만, 이와 같은 活動을 좀더 廣範하고 組織적으로 遂行해야 할 需要가 漸增할 것은 分明하기 때문이다.

教授方法의 하나로 實習活動은 漸漸 強化될 것이다. 이미 한學期로 豫定되었던 實習을 1年으로 延長키로 하였으며 1970 學年度부터는 1年半, 1972 學年度부터는 2年間の 實習을 課할 計劃이다. 實習이 이 같이 重要視되는 것은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에 있어 空間의 設計와 工學的 技法의 理解가 不可缺하고 學習이 항상 實社會의 變遷의 資料를 充分히 利用하고 分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實習을 補充하는 한 方法으로써 現在 計劃實務와 政策過程에 參與하고 있는 人士들과 學校와의 接觸을 積極 장려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들 人士들을 招請하여 學生 教授들과 對話의 機會를 갖게 하는 所謂 特講, 公開세미나 등의 活動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內容의 充實을 爲한 努力과 더불어, 本學科와 같은 課程을 履修한 計劃家들이 社會에서 그 分野의 專門的인 職業人으로써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社會制度의 改善에도 努力을 경주 할 것이다. 專門的인 職業資格을 公式적으로 賦與 받을 수 있는 法制度의 改善 등이 考慮되고 있다.

四. 結 語

以上の 모든 일들이 計劃된 대로 또는 多少의 修正이 되는 대로 豫定된 時間內에 成就되려면 많은 努力과 知慧가 所要될 것임은 勿論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의 發展만으로도 우리의 方向과 計劃의 올바름에 確信을 갖게 되었으며, 未來에 대한 自身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發展의 고비를 以後 5, 6年間이라 보고 이 期間 동안의 上述한 바와 같은 實踐計劃을 세운 터이지만, 우리의 發展計劃은 以後도 年年 改善되고 새로운 需要에 對應해 나가게 될 것이다.

冒頭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社會의 都市化와 人口와 經濟成長으로 因한 地域空間의 再構成의 문제들은 적어도 우리들이 豫見할 수 있는 장래에는 지금만큼이나 그 以上 우리의 應戰을 要求할 것이니, 우리의 發展은 그 동안은 언제나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 以後에 우리와 같은 일을 始作하려는 者들에게 協助者가 되기도 할 것이다.

끝으로 韓國最初의 이 都市 및 地域計劃學의 大學院 課程은 都市와 地域空間의 問題를 研究하고 教育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都市와 地域空間을 社會의 全體的 「發展의 무대」임을 銘心하고 있을 것임을 附記한다.